

# 「2026년 기상·기후 사진 2차 전시회」 개최

-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설중마’ 등 기상·기후 관련 작품 전시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임덕빈)은 기후변화주간(4.20.~4.24.) 및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서귀포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올해 2번째 ‘2026년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를 개최한다.
-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개최된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입상작’ 과 과거 기상·기후 사진전 중 제주에서 촬영한 작품, 그리고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표현한 달콤기후 공모전 그림 등 총 52점이 전시된다.
- 아울러, 제주지방기상청의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이와 관련된 기록물, 기상관측장비 등도 전시되어 제주지역의 기상·기후와 기상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전시 관람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며 특히, 주말에는 전시 작품에 대해 기상·기후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임덕빈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자연이 빚은 경이로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상·기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주요 전시작품 1부.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홍순환 (064-909-3941)
		담당자	주무관	조계민 (064-909-3947)

**붙임**

**2026년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주요 전시작품**

○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_석기철(대상)



설중마\_강병진(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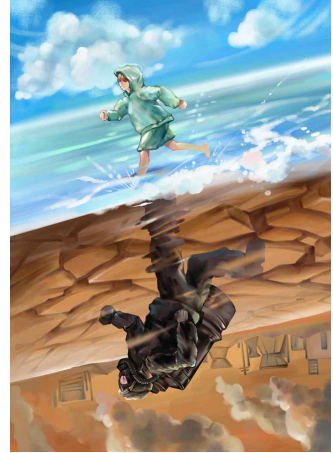
○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추억이 될 현재, 현실이 될 미래  
(김재영, 2025년 대상)



문이 곧 닫힙니다.  
(박소현, 2024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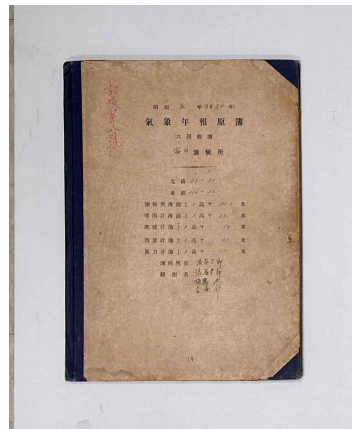


현재에 비친 미래  
(임다현, 2023년 대상)

○ 전시용 기상관측장비와 기록물



기상관측장비(풍속계)



기록물(기상연보 원부 - 1923년)